

韓國 大學教育 發展의 座標

—2000年代를 향하여—

申 泰 煥

(前 學術院 會長)

I. 科學技術 文明의 轉機

21世紀까지는 불과 17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世紀는 科學과 技術의 發達에 있어서 人類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繁榮의 時期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科學技術은 비단 한 나라만이 아니라 國際的으로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個個人 生活의 質的 向上에 막대한 利益을 주었습니다.

그간의 技術史를 瞥見할 때, 産業革命前的 過渡期에 造船, 火藥, 印刷術 같은 發明이 있었습니다. 造船術의 發達은 東西洋을 연결시키고 交易의 擴大를 가져왔고, 火藥의 發見은 兵器의 改良과 軍隊組織의 變化를 가져와 封建制度를 타파하고 近代 國民國家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印刷術의 發明은 國際社會의 情報交換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現代的 科學知識의 普及를 촉진했습니다. 이런 過渡的 狀況에 뒤이어 産業革命이 18世紀 英國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生産手段이 機械化되었습니다. 製鐵, 製鋼技術 등 각종 發明이 한동안 集中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近代百年 동안은 그 이전의 모든 時代를 합한 것보다 많은 技術革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今世紀에 들어서면서부터 電氣, 化學,

自動車工業의 時代가 열리고 鐵대신 輕金屬의 使用, 에너지에 있어서도 石炭 대신 石油의 時代가 열렸습니다. 1930年 이후에는 航空機, 化學纖維, 輕金屬工業이 비약적인 發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50年에 들어서서는 原子力 利用, 石油化學, 電子工業이 오토메이손과 함께 生活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近者에 와서 일렉트로닉스工業의 發達은 메카트로닉스나 포토일렉트로닉스産業의 發達을 가져왔고 이 일렉트로닉스革命은 工業化時代를 지나 情報化時代를 誘導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몰포스 메탈(amorphous metal)을 비롯한 각종 素材工業의 勃興, 라이프 사이언스의 發達은 일렉트로닉스革命과 아울러 새로운 産業革命을 示唆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科學技術文明의 발전에 따라 地球的 規模의 問題나 人間의 本質에 관한 매우 심상치 않은 問題들이 대두되고 있고 人類의 將來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장래의 大學을 생각함에 있어 西紀 2000年을 現代 科學技術文明의 轉機로 보고 科學技術文明의 長點과 短點을 再檢討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今世紀의 意義를 찾고 나아가서 21世紀를 展望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科學技術文明의 惠澤으로 편리한 生活를 영위하게 되었습니다만 한편 매일

텔레비전이나 들여다 보고 생의 큰 부분을 텔레비전에 거는 그런 人間의 思考力의 鈍化를 가져왔고 情緒面에 있어서도 많은 결함을 露呈시켜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便利한 것을 좇기 때문에 사람들은 官能的인 欲望을 만족시키는 데만 바쁘고 그런 결과는 화려하게 보이는 科學技術文明 가운데 人間의 機能을 低下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利用에 따라 工場自動化(factory automation), 事務室自動化(office automation), 家庭生活의 自動化(house automation) 등 버티만 누르면 무엇이든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하는 상황하에서는 사람들이 배사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生活의 智慧를 잃은 채 에고이즘에 빠져 가고 있습니다. 物質 그것을 支配할 수 있는 金錢에 대한 에고이즘과 官能主義와 享樂무드가 生活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人間의 危機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自由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이런 危機를 管理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질만 주어지면 된다는 物質的 價値觀이 지배하는 科學技術文明社會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덕택에 오래 살게 되었으나 精神的 餘裕를 갖지 못하거나 道德的으로 自己主體를 갖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人間이 充滿하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官能的으로 늘던 人間들은 늙으면 쓸모 없는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점차 高齡化해 가는 社會에 이런 인간이 大量으로 처져 남아 21世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問題는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컴퓨터의 광범한 使用, 라이프 사이언스에 있어서의 DNA 操作에서 나올 수 있는 生命體의 異變 같은 것, 原子力 利用에 수반되는 危險問題 등은 그런 것이 없던 時代에 만들어지고 정착한 社會制度로서는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루는 公務員도, 專門家라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社會制度가 現代 科學技術文明에 적응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物質文明이 人間의 欲求를 심히 刺戟했기 때문에 本質的인 價値觀을 잃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價値觀을 추구한 나머지 사람에게 有用한 物質的 條件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는 거꾸로의 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人間 價値에 대한 追求의 姿勢가 바로 잠려지지 않고 精神文化의 水準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科學技術文明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意味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 科學技術文明이 가져 오는 便利하고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의해 잘 소화되고 이용될 수 있다고 하면 精神的 價値觀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맞는 사람들의 訓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줄 아는 訓練과 精神을 養成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現代文明의 危機는 人間과 社會에 대한 研究가 科學技術文明에 對應하는 정도까지 가지 못한 데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科學技術文明이 급속한 發達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의 人間의 멘탈리티(mentality)라는 것이 있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의 急先務는 科學技術文明에 대응할 만한 人間을 研究하고 教育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해야 하는 人文社會科學 方面에 있어서는 法體系라든가 教育制度 등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라 사람들이 知的으로 道德的으로 低下傾向에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對應策이 그리 정밀히 檢討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物質文明과 精神文明 사이의 不均衡이 급속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哲學의 貧困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 때문에 大學은 科學技術의 發達이 2000년에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豫測하고 동시에 人間의 危機와 社會制度의 問題點 등을 가능한 한 노출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 國際化 時代의 大學教育

西紀 2000년을 科學技術文明의 한 轉機로 보고 大學教育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이 시기는 國際化의 時期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은 科學技術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깊은 相互依存關係에 있습니다. 韓國은 이제 先進國 문턱에 이른 新興工業國家로 世界 속의 韓國의 役割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段階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孤立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계 속의 韓國은 交易, 文化交流, 防衛 등 여러 方面에서 國際化的 壓力를 받고 있습니다. 韓國은 세계文化的 廣場에 韓國의 多樣性을 더하고 있고, 그 좋고 나쁜 것이 國際社會에 미치는 영향과 그 反作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利己的 愛國主義는 불가합니다. 外向的인 態度에 있어서 우리는 相互協力하고 調整하고 共通의 利益에 共識서스(consensus)를 찾는 努力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大學은 韓國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國際化的인 프로세스를 摸索하는 데 앞장설 서야 합니다. 물론 理想과 現實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남은 2000年의 高을 향해 大學은 扎实的 努力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韓國의 國際化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異文化를 研究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는 여지껏 歐美文化 만을 배워 왔습 니다. 그것이 오늘의 韓國의 繁榮의 基礎가 된 것도 사실일 것입 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第三世界의 文化를 研究해 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렇다고 해서 歐美文化를 그만 연구 해도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닙 니다. 國際化의 時代에 우리는 各種 異文化에 對한 研究를 통해 서 文化의 多樣性을 찾을 수 있다고 봅 니다. 異文化를 다양하게 研究해 간다고 하는 것은 目前의 利益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 니다. 한 民族의 精神的 發展의 다양한 發想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異民族의 브레인의 믹스를 必 要로 합 니다. 그 때문에 歐美文化를 어느 정도 동화한 韓民族이 또 다른 文化를 찾는 것은 당연한 歸結인 것 입 니다.

本人은 풀브라이트(Fulbright) 教授로 美國에 가서 2개 大學에서 經濟學을 가르친 일이 있습 니다. 그때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20周年 記念式이 뉴욕 컬럼비아大學 法科大學 講堂에서 열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의 創始者인 풀브라이트 上院議員은 이 計劃이 美國文化의 새 프론티어를 넓히는 데 큰 役割을 했고 美國

에 큰 利益을 주었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그 內容인즉 美國國民으로 하여금 異文化에 친하게 했고 그 文化的 多樣性을 生活에 또 學問研究에 活用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 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당시 이 計劃에 의해 每年 約 700名의 各國 學者들을 美國에 招請해 왔고 約 400名의 美國人 學者들을 海外로 내보내 世界各國의 學問과 風俗과 習慣을, 政治와 經濟의 實際를 精確히 把握하게 하었다고 합 니다. 美國에 와서 공부하는 풀브라이트 教授들이 滞在하는 동안의 研究結果를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가서 國家發展에 貢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나, 重要한 것은 그들의 研究結果를 一次적으로는 美國이 이용하게 했다는 것입 니다. 그 中에는 굉장한 研究結果가 있고 그 價値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 全體投資의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합 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美國國民은 異文化의 特性을 알게 되고 친근해지고 그들이 歸國해서 親美的으로 되어 美國의 國家利益을 위해 그 成果가 컸다는 것입 니다. 그들 中에는 契約期間이 끝난 뒤에도 美國에 머물러 서 研究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또는 아주 주저 않아 美國生活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 그래서 두뇌유출(brain drain)이 많이 論難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 니다. 이 두뇌유출의 問題는 그러나 상당히 деликат한 것이 있습 니다. 하나는 招請國인 美國이 優秀한 研究成果를 낸 學者들을 되돌려 보내기보다는 美國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受惠國이 優秀한 高級頭腦를 불러들여도 그 때 맞는 자리가 없다는 것과 計劃적으로 高級頭腦를 美國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窓口로 어떤 學問分野나 技術分野의 정보를 얻는 手段으로 사용하기도 합 니다. 그래서 두뇌유출의 그간의 論爭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 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戰後의 美國의 世界政策을 떠 나가는 데 效果가 컸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사실입 니다. 日本의 Japan Foundation, 獨逸의 D.A.A.D., 英國의 British Council 등 先進國들은 대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풀브라이트 計劃과 같은 效果를 노리고 있습 니다. 우리도 新興工業國家의 先頭走者로 이런 異文化와의 交流計劃을 시도할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先進國들은 開途國에 그간 많은 經濟援助를 했습니다. 그러나 極少數의 例外를 제외하고는 대개는 政治적으로 不正하게 橫取당하고 그 援助成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受惠國의 實情을 모르고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일의 擔當者에 適格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데 基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開途國에 중요한 것은 國家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人間을 養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新興工業國家로 과거의 그런 受惠國의 처지에서 授惠國의 입장으로 바뀌어야 할 段階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開途國들의 留學生들을 漸進적으로 받아들여 가르치고 研究시켜서 그들을 알고 그들 나라의 국가건설의 役軍을 만들어 그들과 協力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귀국하면 指導層에 들어가는 것이 常例로 教育效果는 큰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大學이 中心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韓國의 大學이 國際化되는 데 그리고 國際化時代에 大學이 할 일의 가장 重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時期는 충분히 成熟해 있습니다. 開途國들은 先進國을 따라잡으려고 總力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美國이나 유럽諸國이나 日本에 가서 知識이나 技術을 배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距離는 文化的으로 經濟的으로 너무도 먼 狀態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開途國 學生들이 따라갈 만한 新興工業國家에 選擇의 方向을 돌리는 傾向이 있습니다. 또 開途國 學生들은 舊宗主國, 대체로 白色人種인 先進國에 대한 敵對感이나 人種의 劣等感 같은 距離感을 느끼고 있어 韓國이 풀브라이트計劃 같은 것을 發足시킨다고 하면 크게 歡迎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新興工業國家로서 韓國은 後發開途國들을 위해 우리의 經驗을 나누어 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國益을 위해 좋다는 것을 再強調하는 것입니다.

다음 國際化時代의 教育을 하는 데는 語學教育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책을 읽고 韓國말로 번역은 해도 듣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 그 語學教育은 잘못된 것입니다. 韓國

學生들은 高等學校만 나와도 文法通이 되는데 말을 하는 데는 병어리 같고 듣는 데는 귀머거리 같습니다. 文法과 解釋中心의 語學工夫는 過去 것을 공부하는 데는 좋아도 未來에 대한 活動에는 그 效果가 적습니다. 外國人과 當堂히 討論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國際會議에 나가서 써 가지고 간 원고를 發表는 할 수 있어도 一般 討論段階에 들어 가면 병어리 노릇을 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自己가 생각하는 뜻을 자유로이 表現할 수 없다는 사실이 國際會議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不利한 結果를 초래했다는 예는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基礎的 語學實力이 있고 그 위에 자유로이 듣고 말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國際化 時代에 쓸 수 있는 材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語學教育을 위해서는 大學 이전에 學生의 나이가 어릴 때 訓練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問題는 大學 이전이건 이후이건간에 좋은 語學教師를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語學教師의 理想은 해당 外國語의 母國語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경우는 그런 語學 잘 하는 教師가 絕對적으로 不足하다는 것,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한 社會的 需要가 많아서 學校가 雇傭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語學教育에 있어서 이 不足을 메꾸는 데는 大量으로 語學教師를 특별히 養成하고 얼마 동안은 外國教師를 大量으로 雇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日本의 경우와 똑같은 困難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필요한 國際共通語인 英語에 한하여 英國에서 2,500명 정도 招請해서 正式教員으로 高等教育機關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報道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日本의 窮餘之策은 우리의 궁여지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國際化時代에 外國語教育에 있어서 과감한 投資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大學이 그 擔當者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Ⅲ. 脫工業化와 大學教育

1980年代는 脫工業化社會 또는 情報化社會라

고 하는데 정보화사회로 들어감에 따라 工業化社會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産業革命, 「토플러」 같은 사람이 말하는 第3의 産業革命이 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産業構造는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드(hard)에서 소프트(soft)로 急轉하고 있습니다. 上述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文明社會가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새로운 型의 人材를 教育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科學技術文明이 급속히 進展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教育이 國際化를 해야 하고, 한편 既成知識이 急速度로 낡아지기 때문에 組織的으로 繼續教育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0年代에 있어서의 大學의 하나의 方向을 찾을 수 있습니다. 韓國社會는 1980年代로부터 2000年代에 걸쳐 工業社會를 完結하고 脫工業社會로 들어갈 것이고 高學歷, 高年齡社會가 될 것이라는 것이 최근의 統計가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繼續教育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一次的으로는 大學이 責任을 져야 합니다. 어쨌든 人間이 科學技術文明의 奴隸가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충분히 驅使할 수 있는 訓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方向에서 未來社會에 대한 새로운 教育의 目標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의 그런 教育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interdisciplinary)한 教育과 研究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現代는 文明의 轉機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文明의 內容, 學問의 內容이 무엇이나는 것을 항상 묻게 됩니다. 현재의 거대한 科學技術文明의 進展과 병행해서 公審라든가 資源枯渴, 原子力 利用에 따르는 危險性, 生命科學이 가져 올지도 모르는 生命體의 異變 등이 問題가 되고 學問에 대한 새로운 期待가 커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學問方法에는 限界가 있다고 봅니다. 上述한 諸問題들은 그것이 社會現象이든 自然現象이든 한 가지 專門分野의 知識만 가지고 解決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經濟現象도 政治가 관여되어 있고 生命現象도 生物學의 範圍

를 넘어 있고 그런 現象이 각 知識分野에 널리 걸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외골수의 專門化된 學問方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연히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디시플리나리한 態度와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學問發展의 過程 現象으로 專門化의 길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만 앞으로는 綜合化를 하는 것도 問題解決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Ⅳ. 學問의 大衆化와 大學의 開放

科學技術의 革新에 의해 누구에게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하는 것이 日常生活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高度의 技術에 관한 知識이 널리 普及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社會的要求에 대해 大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傳統的으로 大學이 象牙塔을 자처하고 專門의 深化에만 몰두해 왔습니다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大學은 社會의 要求에 對應하는 問題解決的, 政策指向的 學問人의 態度가 필요해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學問과 社會가 遊離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學問의 길은 그 性質上 求道者의이기도 하고 耽美的의이기도 합니다만 大學은 어디까지나 社會가 안고 있는 問題를 解決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大學이 政治化할 수도 있습니다. 大學은 이런 것을 警戒는 해야 하지만 社會의 需要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繼續教育의 必要性을 강조했고 學問하는 態度에 있어서 인터디시플리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產學協同이란 말이 學界의 贊反兩論의 審判臺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大學은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大學이 産業社會에 貢獻하는 일을 忌避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科學技術이 急進展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大學은 과감히 公開教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夜間大學이나 放送大學 같은 것이 중요한 役割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大學을 나왔다고 해도 몇 년 지나

가던 그 知識이 얼마 안 가 쓸모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生涯를 두고 공부를 繼續해야 하는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種類의 大學에서의 教育에 대해 항상 學位問題가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經驗입니다. 4年制 學部和 大學院을 통한 學士, 碩士, 博士의 學位를 그런 教育課程에 適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教育에 반드시 學位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社會의 需要를 負荷한 學生은 修了證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學位라는 것은 동일한 學力이 있고 동등한 研究結果가 인정된다고 하면 주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격한 커리큘럼에 의한 履修課程을 통해서 말입니다. 科學技術의 轉機에 서서 大學은 대학을 나왔거나 나오지 못했거나를 불문하고 最新知識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公開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 研究와 教育

韓國의 大學이 停滯해 있는 最大의 原因은 社會經濟의 發展과 大學의 實情이 심한 不均衡 狀態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科學技術의 轉機에 서서 既存의 大學은 問題解決을 위한 研究努力은 적고 傳統的 科別 講義 중심의 注入式 教育으로만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大學은 과거의 學問의 所產만 傳授하면 된다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研究分野와 教育分野가 크게 蹉跎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사이엔 經濟成長의 結果로 學生들의 大學進學率이 굉장히 높아지고 學生의 質的 優劣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教授가 좋은 研究結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도 學生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大學院은 몰라도 大學 學部에서는 研究와 教育을 結付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高等學校 때부터 좋다는 학교를 다니고 그래야 一流大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大學에 한 번 들어가면 受驗型으로 자라난 學生들이 지쳐서 大學에서 별로 공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요사이도 정도의 差는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大學 新入生들의 이른바 教養科目에 대한 態度는 그 課程 동안을 浪費해 버릴

정도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教養課程이 高等學校의 延長값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럴 에듀케이션(general education)의 본래의 趣旨는 入學해 들어오는 다양한 學生에 대해서 우선 大學教育을 받을 일정한 수준까지의 教育을 해서 高等學校의 補充教育的인 것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大學 같이 코어커리큘럼(core curriculum)이라고 해서 採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大學教育을 받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藝體能系 學生들의 경우를 보면 大學生들 가운데 技能 이외의 知識에 있어서는 高等學生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들에게도 學位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一般 教養科目을 더욱 效率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一般 教養教育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專門教育을 大學卒業時까지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現實로 中·高를 一貫하는 學制가 있어 가지고 리베럴 아츠(liberal arts) 教育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大學에서는 보다 많은 專門教育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學制는 일반적으로 美國式을 본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美國 51個州 가운데 우리 제도와 같은 것은 불과 13個州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우리 大學制度는 그보다도 유럽의 傳統的 學制도 그것을 본딴 日本의 舊制度 같은 것이 混合된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法科大學을 볼 때 美國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法經大學이니 政法大學이니 經商大學이니 하는 따위는 대체로 유럽스타일의 것들입니다. 이런 制度問題도 2000년에 轉機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再檢討해야 할 것 같습니다.

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는 大學이 未來指向의 이고 問題解決의인 研究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大學教授들의 研究態度를 보면 既成의 paradigim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傾向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왕의 방식에 滿足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파라다

입構築型의 研究가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떤 現實問題를 解決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디시플린(discipline)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디시플린이 配合해서 들어가는 것이 보다 效果的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새로운 方法을 開發하여 問題解決에 가장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종래의 專門化된 디시플린 追求의 研究路線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問題의 發見, 問題解決의 意欲이 강하면, 學者란 利用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이용하게 되고 진정한 paradigma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韓國의 大學에서 必要한 사람은 무엇인가 새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스타일의 教授입니다. 그런데 現實은 매너리즘에 빠진 教授일수록 政治化해서 그런 스타일의 教授를 排除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在來式 注入式教育은 科學技術의 轉機에 있어서 意味가 없습니다. 앞으로 注入은 컴퓨터가 해 줍니다. 세계적으로 불베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듯이 教授는 論文을 써서 發表해서 認定을 받아야 教授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論文이 發表되고 있습니다. 이런 洪水 같은 知識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人間의 能力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注入해 보았자 意味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大學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情報를 自身이 評價하는 價値判斷能力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大學은 그것이 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科學技術의 轉機에 서서 國立大學과 私立大學은 그 하는 研究에 있어서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國立大學은 私立大學의 經營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國立大學은 私立大學을 補充하는 의미에서 파일로드 大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國立大學이고 私立大學이고 國家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材를 養成하는 教育機關이라는 데는 差異가 없습니다. 그러나 私立大學이란 그 財政上 國立大學에 비해 크게 制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私立大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學生納入金에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自然系大學은 그 施設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특히 오늘의 科學技術水準에서 새로운 研究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外國의 예를 보면 하나의 實驗施設에 數百億, 數千億 원의 投資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私立大學의 財政規模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國立大學은 오늘날 돈이 많이 드는 일부 科學技術教育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國家의 科學技術의 先導的 役割을 하는 것은 國立大學이어야 합니다. 私立大學으로는 收支가 맞지 않습니다. 國立大學은 尖端技術이나 學問의 프론티어에 挑戰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國立大學은 돈이 많이 드는 自然科學分野에 重點을 둘 것이고 私立大學은 人文, 社會科學系統과 自然學科 중에도 돈이 덜 드는 부분에서 활발한 活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나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教育面에서는 작은 大學, 研究面에서는 큰 大學의 利點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國立大學은 파일로드 大學으로 研究投資를 과감히 해야 합니다. 日本의 筑波大學에서는 核融合研究센터에 2年 동안에 200億 원 이상의 投資를 했다고 합니다. 이 大學의 施設의 몇 백분의 일도 안 되는 한 施設에 이렇게 막대한 投資를 한다고 하는 것은 日本의 경우에도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不可能한 것입니다. 科學技術의 大轉機에 直面해서 各 大學이 百貨店式 科의 具備를 자랑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形式的인 것이 아니라 科學技術發展에 實質的인 進展을 생각해야 합니다.

Ⅶ. 創造的인 大學

韓國은 그간 外國을 模倣해서 상당한 文化的發展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創意性에 있어서는 부족했음을 否認할 수 없습니다. 西歐的인 文化水準을 가리키는 유럽의 두 가지 傳統的인 行事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國際올림픽이고 다른 하나가 노벨賞입니다. 그 두 가지 중 올림픽을 우리는 1988년에 서울에서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불리한 일입니다. 올림픽大會의 서울 開催決定은 우리의 文化水準이 유럽傳統을 受容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認定한 것입니다. 아직 노벨賞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問題點은 韓國의 앞으로의 大學教育의 焦點을 歐美式으로 創造性을 鼓吹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는 歐美的인 것을 追求하는 데 그쳤습니다. 外國에서 나온 敎科書를 가르치는 데 바빴고 獨創的인 研究活動을 돕는 데 等閑했습니다. 훌륭한 學者들도 많지만 頂上에 이르지 못하고 中途下車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自身은 獨創的인 아니면서 外國에서 留學할 때 노벨賞 수상자 수준의 유명한 學者 밑에서 공부를 했다가 또는 外國의 어떤 大學에서 가르쳤다가 하는 것으로 權威를 과장하는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아무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模倣에 치중하고 다른 學者가 한 것을 同化하고 應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自身이 基礎的인 것을 하고 나서 獨創的인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歐美的인 風土 위에서 成長한 人文社會科學으로 韓國의 風土 위에서 應用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韓國의 人文社會科學의 主流이고 보면 누군가가 獨創的인 새 일을 해보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大學當局은 새 일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獨創的 研究를 도와야 합니다.

Ⅶ. 結 論

우리가 現在 직면하고 있는 文明의 轉機는 유럽의 産業革命이 工業化時代를 열던 때와는 比較도 안 될 정도로 量的으로 質적으로 매우 크고 다른 形態로 進展되고 있습니다. 많은 學者들은 1980年代를 文明의 轉機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學者들은 이 轉機의 特色을 高度工業社會에서 脫工業社會 또는 情報化社會로 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科學技術文明이 産業構造뿐 아니라 市民生

活에 크나큰 影響을 주고 다음 世界로 轉移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日렉트로닉스革命, 生命科學의 革命을 볼 때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오늘날 進行되고 있고 무엇인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기왕의 社會制度나 秩序로는 막혀 버릴 것 같은 危機感을 주고 있습니다.

世界가 文明의 轉機에 서서 새로운 秩序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것은 政治經濟 같은 우리가 날마다 신경을 쓰는 것 말고도 哲學, 倫理, 教育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오늘의 技術偏重의 文明이 만든 金錢萬能主義를 생각해 볼 때 金錢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人生 哲學의 墜落 以外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사이 그런 것이 지나치게 進行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오히려 物質에서 精神으로라는 價値觀의 轉機를 찾는 소리가 큼니다.

우리의 傳統社會와 새로운 科學技術의 轉機 사이에 公害, 資源枯渴, 食糧不足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여기서 大學은 研究와 教育을 통해서 國際社會에 對答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참신한 科學的方法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大學은 舊習을 벗어야 합니다. 大學은 韓國社會의 2000年을 향한 長期비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共感을 얻어야 합니다. 끝으로 韓國의 大學은 外國의 知識을 흡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先進國을 따라잡고 先進國을 克服하는 진정한 意味의 創造的인 頭腦가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創造性이라고 하는 것은 그 民族의 아이덴티티와 自覺이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教育의 根本問題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 이 글은 본 협의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大學教育 發展을 위한 學術세미나' (1983. 12. 14~15., 춘천 세종호텔)의 기조강연으로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